



### 7월의 기도

1. 맥추 감사의 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빈손을 주시지만, 수고한 자에게는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 하신 대로 애쓰고 수고한 자들을 공수로 보내지 않으시고 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며 사랑입니다. 누구든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2.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행실을 보고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3.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거룩한 행적을 이어받아 저희 DCEM 이 세계선교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는 데 그 어떠한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계에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우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로가 더욱 보듬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지극한 관계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달려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새로운 삶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25)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을 지라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림으로써 여전히 사탄에게 사로 잡혀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마음의 벽 위에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하루 24시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벽 위에는 어떠한 모습을 걸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려면 새로운 모습을 마음의 벽 위에 걸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ul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되돌아 보는 DCEM 2008년 해외성회

### <미국 시애틀성회>



2008년 3월 28일 미국 북서부 시애틀 웨더럴웨이에서 개최되었던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 새성전 헌당 예배'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DCEM이 주관하고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가 주최한 가운데 열린 동 교회 새성전 헌당 예배는 성회가 개최되기 전년도 10월 한국에서 열린 국제교회성장대회(CGI)에 참석한 캐시 트리트 목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헌당예배다. 1980년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시애틀 지역 기독교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는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에 맞는 맞춤형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용기 목사의 셀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복음화에도 앞장선 교회이다. “오랫동안 절친한 관계를 맺어 온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여 조용기 목사를 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된 예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



보며 꿈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 새성전 헌당 예배'는 미국 북서부 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해 한인선교사와 신학생, 장로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헌당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앞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며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충만히 임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조 목사는 이날 헌당예배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성회를 인도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얼굴로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냐고 물어온다”며 그럴 때마다 조 목사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뤄 주신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가나안 땅을 나왔을 때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몰랐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의 별과 동서남북을 바라본 후 가야할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했고 결국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설교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씩 세어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목표를 가졌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세어 보라고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58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기 원하는지 물으셨는데 그때 구체적인 성도 수를 말한 적이 있었다”며 훗날 하나님께서는 조 목사 자신이 말씀 드린 성도 수에 걸맞게 교회를 기적으로 부흥시켜 주셨다고 간증했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 새성전 헌당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비전과 꿈을 꾸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 헌당예배'에 이틀 앞선 지난 26일 캐시 트리트 목사 부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캐시 트리트 목사의 자녀들과 김성혜 총장 그리고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및 웨더럴 웨이전 시장이 함께 배석했다.

# 항상 선을 따르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18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람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따라야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힘이나 처세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 1. 믿음으로 이기는 삶

우리는 마음속에 승리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러한 마음으로 단단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므로 이깁니다. 용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시는 신앙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감

정이 기뻐하고, 우리의 범사의 생활 속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좋다, 안 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밥도 못 먹었습니다. 한밤중에 쇠고랑에 차여서 들어가며 '이런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못하십니까. 너무합니다'는 마음의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쇠고랑에 묶여서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감옥에는 죄인들이 다 쇠고랑에 묶여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잠긴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 주십니다. 고약한 성격도 감사 찬양을 하면 풀어줍니다. 우리 생활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감사 찬송이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의 상황도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자유롭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 2. 고난 후에 다가오는 승리의 기쁨

영광은 고난을 지나야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좋은 일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희로애락을 사람들과 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사람들 부족한 것,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서 꿋꿋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못난 것은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거두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은 성령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대신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 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

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후에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옳이 있습니다. 옳은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옳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옳이 23장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울 수 없구나"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10)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시련을 통과해야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3.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4차원의 영성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4차원의 영성은 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늘 긍정적이야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4차원은 물질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입니다. 4차원의 근본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4차원의 주인인데, 우리가 성령과 같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꿈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하라고 하니깐 그냥 방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방언은 성령이 와서 비밀로 대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즐거움, 힘들지 않는 안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기 넘치는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 마태복음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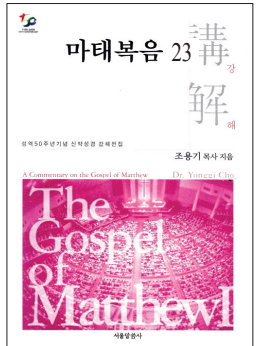
##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 주님의 기대대로 애쓰고 노력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서기관이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바리새 종파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으며 모든 소득의 십일조, 예를 들어 밭에 나는

채소의 십일조까지 철저히 따져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를 혐오하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의롭게 보였지만 실제 내용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보이는 데서는 고아를 애제하고,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고, 마음 속의 온갖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위선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의보다는 우리가 더 낮게 살아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고 장엄하게 기도하고 경건한 체했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탐욕이 팍 들어차서 위선을 행하고 탐욕과 욕심에 젖어서 살았



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 중심이 늘 투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겉으로는 잘 믿는 체 하는데 속으로는 영터린 신자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그보다 낫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참으로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윤리적, 도덕적, 인격적인 기준에 도달하는 일은 새까맣게 먼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거져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노력하고 애써야 가능합니다. 이미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대대로 살 것인지를 말씀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의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것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 삿포로신학교 2027 신입생모집

모집기간: 7월31일(금)

### 일본 선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취득 또는 예정인 자
- § 입학 전까지 JLPT N3레벨 이상의 실력을 갖추 수 있는 자

### 원서 제출

삿포로신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sapporobible.college.kr)

### 등록금 및 학비지원

250만원/년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식비 일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통한 합격자는 상기 해당하는 비용 전액이 면제 됩니다.

### 입학문의

Tel +81-11-211-4511(삿포로신학교)  
Tel 02-6181-5061(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Tel 02-6181-6572(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

SAPPORO BIBLE COLLEGE